2022 필진 소개

현대불교신문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강화했다. 논설위원들을 보강했으며 문화 · 역사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신규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신규 필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주석 스님



윤재웅 교수

주석 스님은 1988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승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BBS 불교방송에서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大路)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소통했으며 대운사 주지,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문화예술법인 쿠무다는 불교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의 모범을 보여준다. 최근 새롭게 건립한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는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명상센터, 북카페, 방송국, 바다법당 등 말 그대로 모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다.

윤재웅 교수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이자 국문학자로 고등학생 시절 '만해 탄생 100주년 제1회 만해백일장' (1979년)에서 대상을 받아 일찍이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다.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이자 다르마칼리지 학장으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동국역경원 출간 〈불교성전〉을 윤문하고, 선시집 〈어쩌라구〉를 펴냈다.

오피니언

유응오 작가의 '문화산책'



2001년 〈불교신문〉과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며 소설가로 데뷔했으며, 〈주간불교신문〉과 〈불교투데이〉 편집장을 역임한 불교 언론인이기도 하다. 〈영화, 불교와 만나다〉를 발간할 정도로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 내포된 '불교 코드'를 읽어내는 데 탁월한 안목을 지녔다.

오피니언 칼럼 '문화산책'을 통해 유응오 작가는 문학과 미디어 속 '불교 코드'를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전한다.

인현 스님의 '함께 걷는 제주'



제주도는 한국이지만 무언가 이국적이다. 소위 '뭍것'들, 육지인들에게는 생경한 문화가 적지 않다. 그런 제주에서 펼쳐지는 불교문화, 포교 이야기를 인현 스님이 전한다. 인현 스님은 어린 시절 제주 어촌 김녕 백련사에서 출가했다. 합천 해인사의 강원과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경전을 공부했다. 인연이 닿아 해인사, 법주사 승가대학의 강의를 맡았다. 현재 제주 오름의 길목 선래왓 도량에서 정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송마나 작가의 '시절인연'



'시절인연'은 모든 사물의 현상이 시기가 돼야 일어난다는 말을 가리키는 불교용어지만, 현대와서는 기회와 때가 올 때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 달에 한번 송마나 작가가 시절인연에 맞는 잔잔한 단상을 독자에게 전한다.

송마나 작가는 2016년 계간 〈에세이문학〉으로 수필로 등단했고 2017년 〈한국산문〉으로 평론으로 등단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대동창문인회, 송현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음명상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문현공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천착해왔다. 명상과 종교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그동안 죽음명상과 죽음학 등을 연구했다. 죽음은 삶의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죽음을 주제로 한 불교의 마음공부에 대해 익혀보자. 문현공 교수는 뉴욕주립대 한국학센터 객원연구원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주요 논문으로 〈불교 죽음 명상의 교육학적 적용〉, 〈죽음 현저성의 교육적 함의〉 등이 있다.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김병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는 간화선을 비롯해 다양한 명상과학 프로그램을 두루 섭렵한 명상전문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명상의 참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쉽게 설명한다. 명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보자. 마음챙김 명상앱 '하루명상'의 개발자인 그는 현재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로 있으며, 하트스마일 명상연구회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딜로이트컨설팅, 머서컨설팅, 앤더스컨설팅 등에서 근무했다.

경전교리

지휴 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평범한 한 청년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반야심경〉의 한구절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을 듣고 구도의 길을 나섰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수행이라는 백지 위에, 수 없이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모든 그림이 실재하지 않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얀마에서 출가하여 지금은 전남 곡성 사단법인 여시아문 선원에 선원장으로 인연 닿는 이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다.

삶과사유

김서정 작가의 '절집나무이야기'



나무를 공부하는 김서정 작가는 '절집나무이야기'를 통해 전국 곳곳 사찰 뜰 안에 있는 나무들을 소개한다. 나무들의 생장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에서 얻는 삶의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서정 작가는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0년 단편소설 〈열풍〉으로 제3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어느 이상주의자의 변명〉 〈나를 표현하는 단숨에 글쓰기〉 〈숲토리텔링 만들기〉 등을 출간했다.

승한 스님의 '불교시 읽기'



승한 스님이 읽어주는 '불교시'이다. 불가적 사색과 사유로 시 한 편을 읽어보는 시간이다. 승한 스님은 중앙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동양철학)을 수료했다.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와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동시가 당선됐다. 시집으로 〈수렵도〉, 〈퍽 환한 하늘〉,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 〈그리운 173〉 등과 산문집으로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스님의 자녀수업〉, 〈네 마음을 들어줘〉, 〈좋아 좋아〉 등이 있다.

박주용의 '소금 & 건강'



매일 먹는 소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명의 탄생 이래 매일매일 먹어온 소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본다. 박주용은 ㈜오씨아드 이사로 소금전문가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경동대학교 해양심층수 학과를 졸업했다. 대우인력개발원,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했다. 대우그룹 공로상 등을 수상했으며, 〈에버랜드 서비스리더십〉,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코로나시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염려되는 시대다. 한국의 약차에 대해 알아본다. 선엽 스님은 안양 예절원 다도사범과 명원재단 사범을 수료했다. 삼선승가대를 졸업했으며, 원광사이버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불학승가대학원, 유마사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동방문화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수원봉녕사 율학승가대학 재학 중이다. 티뮤지움 마음정원 대표이며, 약차를 만들고 국내외에서 약차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기획연재

김진무 교수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으로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歸命)하여 중국의 불교를 살아있게 만든 역대 종장(宗匠)들의 행적과 사상을 들여다본다. 김진무 교수는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산법문과 그 선사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중국 남경대학 철학과에서 〈불학과 현학의 관계연구〉(中文)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를 역임했다.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한국 선승들의 삶과 수행의 일화들을 주제별로 묶고 선적인 의미를 들여다본다. 이강옥 교수는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와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예일 대학교 비교문학과, 뉴욕주립 스토니브룩 대학교 한국학과의 방문교수로 연구했다. 한국구비문학회, 한국어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계학술상(2020) 등을 수상했다.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붓다는 평생을 중생교화를 위해 설법했고, 열반 뒤에 그 말씀은 경전으로 정립됐다. 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예술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데 불교미술로 출현하는 계기가 됐다. 경전의 이야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풀어낸 도상이 '변상도'다. 김선희 동국대 연구교수는 독자들에서 '변상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다. 김선희 교수는 중국상해국제미술제특별상(2015)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 미술제에서 수상했으며, 올해의 작가 100인전 대상,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의 핵심은 끝없는 희생과 보시 그리고 복잡한 인연이다. 석가모니께서는 한 번의 희생으로 싯다르타 태자로 태어나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현재 알려진 본생담이 547종이므로 최소 547번의 희생과 보시의 삶을 반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불교회화를 전공한 조성금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가 본생도와 연원과 부처님 이야기인줄 모르고 구전돼 온 설화를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전한다.

